

# 융합 현상과 ‘(-고) 하-’의 관련성: [대]형 표현의 분석을 중심으로

채희락\*†

한국외국어대학교

Hee-Rahk Chae. 2006. Fusion and (-ko) ha-: Focusing on the [tae]-type expressions. *Language and Information* 10.1, 1-20. We can distinguish two different groups of “fusion expressions” depending on whether the verb (-ko) ha- ‘do’ can be recovered from the contracted expression concerned or not: recoverable and unrecoverable fusion expressions. Many expressions belonging to the former group show alternations between the [da]-type and the [dae]-type: e.g., *o-nta-nta* and *o-ntae-nta* ‘... says ... is coming.’ On the other hand, some expressions like *ka-ntae* can only be realized as the [dae]-typ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ccount for these [dae]-type expressions. First, we assume that they have an inaudible/invisible quotation verb  $\emptyset$ -, which takes as its complement a verb phrase with a neutral speech-level ending. This quotation verb is derived from the quotation verb *ha*-. Second, we assume that the quotation verbs  $\emptyset$ - and *ha*- have the [j] sound as their stem-final element, which means that these verbs are actually represented as  $\emptyset$ -j- and *ha*-j-, respectively. In this system, the [tae]-type expressions come out naturally from the behavior of the [j] sound. We do not employ any *ad hoc* phonological rules to derive the [dae]-type expressions from the corresponding [da]-type expression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융합 현상 (fusion), 환원성 (recoverability), 인용 동사 (quotation verbs), 무성 인용 동사 (inaudible quotation verbs), [다]-[대] 교체 ([ta]-[tae] alternations), [대]형 표현 ([tae]-type expressions)

\* 449-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E-mail: hrchae@hufs.ac.kr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여기서 제안된 분석의 기본적인 생각은 2004년 6월 19일 한국언어정보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어의 소단위어: 동사류 소단위어를 중심으로”에 제시되어 있다. 그 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 2005년 6월 18일에 열린 한국언어정보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융합 현상과 ‘(-고) 하-’ 생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논문의 저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2단계 BK 21 사업 “언어 중립적 온톨로지 연구” 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논문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 1. 도입

융합이란 독립 단어이던 것에 축약이 일어나 선행 단어에 의존하는 요소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 융합 현상 중 일반적으로 ‘(-고) 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 중에는 중간에 ‘(-고) 하-’가 실제로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이 두 유형을 각각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 볼 것이다. ‘(-고) 하-’ 관련 융합형 중에는 ‘온단다’와 ‘온댄다’에서처럼 ‘-다-’와 ‘-대-’의 형태적 변이가 가능한 것이 있으며 ‘간대, 가내, 가래, 가재’ 등에서처럼 ‘-대-’ 형태만 가능한 것이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런 “[대]형” 표현들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간에 숨어 있는 ‘(-고) 하-’ 관련 동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대]형 표현을 분석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가정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형 속에는 중립 화제 어미를 취하는 무성 인용 동사 어간 ‘ $\emptyset$ -’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 동사는 인용 동사 ‘하-’로부터 어휘 규칙에 의해 도출된다. 둘째, 이들 인용 동사 ‘하-’와 ‘ $\emptyset$ -’는 둘 다 반자음 [j]를 어간의 종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인용 동사 ‘하-j’와 ‘ $\emptyset$ -j’의 [j] 소리는 뒤 따르는 소리가 모음인지 자음인지에 따라 행동이 다르다. 이 분석의 장점은 어간 종성 소리 [j]를 도입하고 이의 분포 환경에 따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대]형과 [다]형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고) 하-’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융합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2장에서는 중간에 ‘(-고) 하-’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환원적” 융합형과 ‘(-고) 하-’가 숨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비환원적” 융합형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바쁘-단다’와 같은 표현은 환원적 용법과 비환원적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의적 표현이다. 환원적 ‘-단다’에 대해서는 ‘-다’와 ‘-ㄴ다’ 중간에 ‘(-고) 하-’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이론과  $\emptyset$ -형 동사 어간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론이 있는데, 우리는 후자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비환원적 ‘-단다’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단일 형태소 어미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우리는 ‘-다’와 ‘-ㄴ다’가 분리되어야 하며 후자는 접어라는 입장을 취한다. 환원적 융합형에 대한 2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대]형 융합형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제시한다. 1절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 보고 2절에서는 인용 동사 어간 끝에 [j] 소리를 도입한 우리의 분석을 제시한다. 기존 분석에서와는 달리 우리는 자의적인 음운 규칙들을 설정하지 않아도 [대]형 융합형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 2. 융합 현상과 ‘(-고) 하-’

어절 속에서 음운론적으로 어근에 종속된 요소는 파생접사와 굴절접사 및 접어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채희락, 2005b, 571-574쪽). 이들 어근 종속 요소들의 형태-통사적

지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파생접사와 굴절접사는 단어 내부 요소이지만 접어는 단어 외부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들을 접어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분석이 크게 달라진다. 이론적 관점에 따라 어휘적 접근법과 통사적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접근법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에서 주로 명사와 결합하는 종속 요소들과 여러 품사와 두루 결합할 수 있는 종속 요소들은 동사에 붙는 종속 요소들보다 상대적으로 독립 단어적인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자에 속하는 후치사(postpositions)와 한정사(delimiters)는 접어로 분석하고 후자의 동사 종속 요소들은 굴절접사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Chae, 1991/2000; Chae, 1995; 채희락, 1996; Chae and No, 1998). 그러나 모든 동사 종속 요소들을 굴절접사로 볼 수는 없다. 채희락 (2005b)는 인용격 조사 ‘-고’와 ‘(나는 배가) 고프단다’와 같은 표현의 ‘-는다’ 등을 접어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동사 종속 요소들을 분석하는 데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요소 앞에 ‘(-고) 하-’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sup>1</sup>

## 2.1 환원적 융합형과 비환원적 융합형

학자들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지양 (1996, 30쪽)은 “융합(fusion)”을 “연결형에서 완전한 단어로 음절 수 줄이기가 일어나 의존 요소로 재구조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음절 수 줄이기”의 대상이 되는 음절이 ‘(-고) 하-’인 경우만을 살펴 보려고 한다. ‘(-고) 하-’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융합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1) a. (영희가) 철수가 온다-더라.
- b. 아버지가 오라-시-는다.
- (2) a. (\*엄마가) 나도 바쁘-단다.
- b. 수술을 받-자니 (겁이 났다).

(1)의 밑줄 친 표현들이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중간에 ‘(-고) 하-’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이런 표현들의 특징은 관련된 주어가 두 개이며 중간에 존칭이나 시제를 표시하는 굴절접사인 선어말어미가 삽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a)에서 오는 사람은 철수지만 ‘온다더라’의 주어는 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그리

<sup>1</sup> ‘(-고) 하-’에서 ‘-고’를 괄호 속에 넣은 이유는 숨어 있는 요소가 ‘-고 하-’인지 ‘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cf. 각주 3).

<sup>2</sup> ‘(-고) 하-’가 “숨어 있다”는 말은 이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이론에 따라서는 ‘(-고) 하-’가 생략되었다고 보거나 ‘(-고) 하-’ 관련 보이지 않는 동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저자는 이론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고 (1b)에서는 중간에 선어말어미 ‘-시-’가 삽입되어 있다. (2)의 표현들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중간에 ‘(-고) 하-’가 숨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관련된 주어가 하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선어말어미의 삽입도 불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위의 두 유형을 “참된 축약형”과 “유사 축약형” (남기심, 1973/1986), “환원적 융합형”과 “비환원적 융합형” (안명철, 1992; 이필영, 1993), “단순 융합형”과 “진전된 융합형” (이지양, 1996)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원적/비환원적 융합형이란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융합형에서 앞 쪽의 [어간-종결어미] 단위 다음에 오는 요소, 예를 들어, (1a)의 ‘-더라’나 (2a)의 ‘-다’의 형태-통사적 지위는 그 앞에 ‘(-고) 하-’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고) 하-’가 숨어 있는 환원적 융합형에서는 그 숨어 있는 동사의 어간에 붙는 요소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온다-시-더라’와 같은 표현에서 ‘-시-’와 ‘-더라’는 앞 쪽의 어간 ‘오-’에 붙는 것이 아니라 뒤의 숨어 있는 어간에 붙는 굴절접사 어미이다. ‘(-고) 하-’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비환원적 융합형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다’ 전체를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일 굴절접사로 보고 있지만 채희락 (2005b)에서는 ‘-단다’에서 앞 쪽의 ‘-다’는 굴절접사로 뒤 쪽의 ‘-다’는 접어로 분석하고 있다.

예문 (2a)에서 ‘-단다’는 비환원적 용법으로 쓰였지만 실제로 ‘-단다’는 환원적 용법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단다’가 붙은 표현은 중의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의 ‘(예쁘)-단다’는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으며 사실을 기술하는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 (남기심, 1973/1986; 한길, 1988; 안명철, 1992; 이필영, 1993; 이지양, 1996;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국립국어연구원, 1999).

(3) 영화는 누가 보아도 예쁘단다.

환원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숨어 있는 동사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환원적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사실 기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용의 의미는 전혀 없다.

## 2.2 두 가지 융합형의 분석

이 절에서 우리는 환원적/비환원적 용법의 ‘-단다’를 각각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채희락 (2005b)의 분석을 중심으로 알아 보려고 한다. (3)의 예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분석을 살펴 보면, 환원적 용법을 나타내는 ‘예쁘단다’는 [예쁘-다(-고) 하-다]에서 ‘-고 하-’가 생략되어 도출된 것으로 본다.<sup>3</sup> 그러므로 앞 쪽의 ‘-다’는 ‘예쁘-’에 붙

<sup>3</sup> 환원적 용법의 ‘예쁘단다’에서 생략된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고 하-’가 생략되었다고 보지만 이필영 (1995)는 ‘하-’만 생략되었다고 주장한다. ‘-다고 한다’와 ‘-다 한다’는 구어체와 문어체로 공존하는 관계에 있으며 ‘-단다’는 ‘-다 한다’의 축약형이라는 것이다.

는 굴절접사이고 뒤 쪽의 ‘-니다’는 ‘하-’에 붙는 굴절접사이다. 그러나 비환원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중간에 ‘(-고) 하-’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지 않으며 ‘-단다’가 ‘예쁘-’에 직접 붙는 단일 형태소의 굴절접사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전통적인 분석만 고려하면 전자에 대한 분석이 후자에 대한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용법의 분석 모두에 문제가 있다. 이제부터 논의의 편의를 위해 환원적 용법을 보이는 ‘-단다’를 ‘-단다<sub>1</sub>’로 비환원적 용법을 보이는 ‘-단다’를 ‘-단다<sub>2</sub>’로 표시한다.

먼저 환원적인 ‘-단다<sub>1</sub>’을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 보자 (채희락, 2005b, 593-596쪽). 위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중간에 ‘(-고) 하-’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생략이라는 통사적 기제를 사용하는 변형생성문법적 다층 이론의 전통에서 이루어진 분석이다. 그러나 “핵어 중심 구구조문법 (HPSG)” 등 표면구조 중심의 다층 이론에서는 생략을 인정하지 않는다. 생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간에 동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들리지/보이지 않는 동사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겹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체가 있는 동사를 “ $\emptyset$ -형 동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단다<sub>1</sub>’의 중간에 ‘(-고) 하-’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이론과 그 사이에  $\emptyset$ -형 동사 어간이 있다고 보는 이론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자.

채희락 (2005b, 594쪽)은 ‘-단다<sub>1</sub>’ 중간에 있는  $\emptyset$ -형 동사를 인용 동사 ‘하-’로부터 다음과 같은 파생 “어휘 규칙(lexical rules)”으로 “도출해” 내고 있다 (cf. Sag, Wasow, and Bender (2003, sec. 15.3.5)의 “무성 계사 (silent copula)” 분석).

(4) “무성 인용 동사” 어휘 규칙

$$\left[ \begin{array}{l} d\text{-rule} \\ \text{INPUT} \quad \langle \text{ha-}, \text{ARG-ST} [\dots, \text{CP/S}[\text{SPEECH-LEVEL neutral}, \dots]] \rangle \\ \text{OUTPUT} \quad \langle \emptyset\text{-}, \text{ARG-ST} [\dots, \text{S}[\text{SPEECH-LEVEL neutral}, \dots]] \rangle \end{array} \right]$$

이 규칙의 “입력 동사” ‘하-’와 “출력 동사” ‘ $\emptyset$ -’는 모두 “중립 화제”의 의미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sup>4</sup> 이들의 차이점으로는, 우선, 음운론적 음가의 유무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5)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 동사는 논항으로 보문소 절이나 보문소가 없는 절을 취한다.<sup>5</sup> 접어인 인용 조사 ‘-고’가 CP의 머리어인 보문소이다.

<sup>4</sup> “중립 화제”라는 것은 상대 높임법의 경어법 등급 중 인용 조사 ‘-고’와 결합할 수 있는 화제를 따로 설정했을 때의 화제를 말한다 (Sohn 1999, 271쪽; 채희락 2005b, 581쪽): ‘-니다/는다/다/라, 더라’ (평서형 어미); ‘-느냐/냐’ (의문형 어미); ‘-(으)라’ (명령형 어미); ‘-자’ (청유형 어미).  
<sup>5</sup> (5)에서 문장 (a)와 문장 (b)가 의미/화용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필영 (1995)에 의하면 전자는 구어적이며 후자는 문어적이다. 만약 이런 문체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문소 절을 취하는 ‘하-’와 보문소가 없는 절을 취하는 ‘하-’를 구별하고 전자에서 후자를 도출해 내는 파생 어휘 규칙이 필요하다 (Sag, Wasow, and Bender, 2003, 357-58쪽). 만약 이 두 가지 ‘하-’를 구별한다면 (4)의 입력 동사는 후자의 ‘하-’가 되며 이와 출력 동사 ‘ $\emptyset$ -’ 사이에는 논항 구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 (5) a. 철수가 간다-고 하-는다.  
 b. 철수가 간다 하-는다.
- (6) a. \*(영희가) 철수가 간다-고 ∅-는다 [간다곤다].  
 b. (영희가) 철수가 간다 ∅-는다 [간단다].

그렇지만, (6)에서 볼 수 있듯이, 출력 동사는 보문소가 없는 절만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 ‘(간다)-고’와 ∅-형 동사가 결합한 형태인 ‘(간다)곤다’는 비문법적이다.

이제 ‘(-고) 하-’ 생략을 가정하는 전통적인 분석과 추상 동사 ‘∅-’를 설정하는 위의 이론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생략을 가정하지 않는 후자의 단층 이론이 이를 가정하는 전자의 다층 이론보다 훨씬 타당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추상 동사 ‘∅-’를 설정하는 단층 이론이 (5-6)의 자료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다<sub>1</sub>’ 중간에 ‘-고 하-’가 생략되었다고 할 경우 생략된 것이 어떤 것이며 또 그 요소가 어떤 경우에 생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전통적인 설명으로는 먼저 (5a)에서 ‘-고’가 생략되어 (5b)가 만들어 지며 (5b)에서 다시 ‘하-’가 생략되어 (6b)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5a)에서 (5b)가 도출된다면 ‘-고’가 어떤 환경에서 왜 생략이 되는지 그 이유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6b)는 ‘하-’ 생략에 의해 도출해 낼 수 있다지만 왜 (6a)는 도출이 불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작용하는 생략 현상들을 음운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형태/통사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규칙들을 사용하면 해당 문법 체계의 “생성력(generative capacity)”을 적절히 통제할 수가 없게 되어 분석의 타당성을 잃게 된다.

이필영 (1993, 117쪽)은 위의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단다’로 축약/융합되기 이전에 ‘-고’가 탈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역사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가 융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인데 또 다른 융합을 위해 그 ‘-고’가 탈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고 한다’에서 ‘-고’가 탈락하여 ‘-다 한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둘은 구어체와 문어체의 독립적인 표현으로 서로 공존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단다’는 ‘-다고 한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 한다’의 축약형으로 본다. 이 접근법은 ‘-고’ 생략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전통적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분석에서는 무엇보다 ‘-다고 한다’와 ‘-다 한다’의 관련성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역사적으로는 두 형태가 독립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한국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어린애들이 이들을 서로 관련이 없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위의 ‘-고’ 탈락 관련 문제는 생략을 가정하는 이론에서만 생긴다는 것이다.

중간에  $\emptyset$ -형 동사 어간이 있다고 가정하는 단층 이론에서는 (5)와 (6)의 자료를 좀 더 체계적이고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선, (5)의 두 문장은 보문소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차이를 상위 동사의 개별적인 보충어 선택의 문제로 본다. 즉, 어휘 규칙 (4)의 입력 부분에서 규정된 대로, ‘하-’ 동사가 CP나 S 단위를 보충어로 취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6a)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4)의 출력 부분에서 규정된 대로, 추상 동사 ‘ $\emptyset$ ’는 보문소가 없는 절만 보충어로 취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단층 이론에서는 이론적 특성상 (5)와 (6)에서 볼 수 있는 (생략) 현상들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현상들은 어휘 항목들의 개별적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일반 원칙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반면, 단층 이론에서는 개별 어휘의 속성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특수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음으로 비환원적인 ‘-단다<sub>2</sub>’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채희락, 2005b, 585-591쪽). 기존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 보면, 이필영 (1993, 122, 143쪽)은 “하나의 어미 구조체로 굳어진 형태론적 구성”이기 때문에 앞 쪽의 ‘-다’를 내포절 어미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지양 (1996, 198, 200쪽)은 “독립적인 항목으로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 “융합에 의하여 형태화”된 것으로 본다. “형태론적 구성”이나 “형태화”된 것이 형태-통사론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진 단위를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최소한 종결어미로서의 ‘-단다’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종결어미는 없기 때문이다.<sup>6</sup>

‘-단다<sub>1</sub>’은 중간에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사 어간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 있지만 ‘-단다<sub>2</sub>’는 중간에 그런 동사가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다<sub>2</sub>’ 전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뒤 쪽 종결어미 ‘-다’ 자리에 다른 종류의 종결어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필영, 1993, 143쪽).<sup>7</sup>

(7) a. 나는 돈이 많-다-다 [-단다].

b. 나는 돈이 많-다-네 [-다네].

<sup>6</sup> 드물긴 하지만 여러 형태소가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형태(“portmanteau morph”)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Spencer, 1991, 50-51쪽). 그렇지만 ‘-단다’는 형태적으로 ‘-다’와 ‘-다다’의 구별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하나의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볼 수는 없다. 우리말의 용언 어미 중 ‘-어서, -어야, -어요’ 등을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 요소로 분석하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어서’와 ‘-어야’ 등의 연결어미가 비록 역사적으로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위라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말에서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Chae and No, 1998, 85쪽). 그리고 ‘-어요’는 종결어미 ‘-어’와 한정사 ‘-요’로 이루어진 구성체이기 때문에 ‘-어요’ 전체를 종결어미로 볼 수는 없다 (cf. ‘제가-요 어제-요 영화를-요 세 편을-요 보았습니다-요’).

<sup>7</sup> 그리고 ‘-단다<sub>2</sub>’의 앞 쪽 종결어미 ‘-다’ 자리에도 다른 종류의 종결어미가 나타날 수 있다 (채희락, 2005b, 587-588쪽).

- c. 나는 돈이 많-다-오 [-다오].
- d. 저는 돈이 많-다-ㅂ니다 [-답니다].

(8) a. 나도 자네와 함께 가고 싶-다-네 [-다네]. (남기심, 1973/1986, 121쪽)

b. 애가 우리 첫째-~~라~~-ㅂ니다 [-랍니다]. (이익섭·채완, 1999, 122쪽)

이처럼 ‘-다’ 자리에 반말체 어미를 제외한 모든 평서문 어미가 나와서 비환원적 용법을 보인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요소의 일부인 ‘-다’ 부분이 생산적이라면 ‘-단다<sub>2</sub>’를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는 없다. 즉, 비환원적 용법을 보이는 것도 완전히 “융합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단다<sub>2</sub>’를 단일 형태소로 분석을 한다면 ‘-다네<sub>2</sub>, -다오<sub>2</sub>’와 ‘-답니다<sub>2</sub>’도 모두 분해가 불가능한 단일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중립 화계의 평서문 어미 ‘-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 자리에 경어법 등급에 따른 어미가 체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 (7)의 ‘-다’가 중립 화계의 평서문 어미라는 것은 (8b)가 잘 보여 준다. 평서문 어미가 중립 화계에 서만 제사 ‘이-’ 다음에서 ‘-다’가 아니라 ‘-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다<sub>2</sub>’를 단일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 왜 ‘-단다<sub>1</sub>’과 동일한 겹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우연의 일치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단다<sub>2</sub>’가 단일 형태소인 개별 어미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단다<sub>2</sub>’는 단일 형태소가 아니며 최소한 두 개의 형태소를 가진 단위, 즉 ‘-다-다<sub>2</sub>’로 분석을 해야 한다. 두 개의 형태소를 가진 단위로 보았을 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접근법은 그 두 요소를 모두 굴절접사로 분석하는 방법과 모두 접어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어휘주의적 입장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배-결속 이론의 전통을 따르는 통사주의적 입장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다<sub>2</sub>’의 ‘-다’와 ‘-다<sub>2</sub>’를 동일한 종류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한국어의 모든 용언 어미는 단일 형태소 요소인데 왜 ‘-단다<sub>2</sub>’만 다중 형태소 요소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cf. 각주 6). 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어말 굴절접사 다음에 동일한 유형의 어말 굴절접사가 또 나올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어절의 끝에만 나오는 굴절접사 두 개가 동시에 동일한 어절에 나타날 수는 없다. 두 요소를 모두 접어로 보아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단다<sub>2</sub>’는 두 개의 형태소를 가진 단위로 보아야 하지만 이 두 형태소를 동일한 형태-통사적 속성을 가진 단위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종결어미 다음에 붙는 ‘-다<sub>2</sub>’를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다음에 붙는 ‘-다<sub>1</sub>’과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것이다. 채희락 (2005b, 589쪽)은 전자를 접어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후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굴절접사로 본다. 예를 들어, 환원적 용법의 ‘바쁘단다’는 [바쁘-다 ~~라~~-다<sub>1</sub>]로 분석하고 비환원적 용법의 ‘바



쁘단다’는 [바쁘-다-ㄴ다<sub>2</sub>]로 분석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ㄴ다<sub>1</sub>’는 0-형 동사의 용언 어간에 붙는 굴절접사인 종결어미이고 후자의 ‘-ㄴ다<sub>2</sub>’는 종결어미로 끝나는 용언에 붙는 (종결) 접어미이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바쁘단다’의 두 용법에는 숨어 있는 동사의 관련여부와 ‘-ㄴ다’의 형태-통사적 지위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바쁘단다’의 중의성은 결국 ‘-ㄴ다’의 중의성으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접어 분석의 타당성은, 한 마디로 하면, 해당 단위가 (종결어미와는) 독립된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어절의 마지막 요소인 종결어미 다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중간에 동사가 숨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단위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통사적) 단어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석이다.

### 3. [대]형 융합형의 분석

우리는 앞 장에서 ‘(-고) 하-’와 관련된 표현들을 중간에 동사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환원적 융합형과 어떤 동사도 숨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비환원적 융합형으로 나누었다. 우리가 살펴 본 ‘오-ㄴ다-더라’와 ‘예쁘-다-ㄴ다’ 등에서는 어간 바로 다음의 중립 화계 어미가 본래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 ‘(-고) 하-’ 관련 융합형 중에는 중립 화계 어미가 변형된 형태로 드러나는 표현들도 있다.

#### (9) 온대더라, 예쁘덴다; 간대, 가내, 가래, 가재

이 논문에서는 이런 변형된 중립 화계 어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지칭할 때 “[대]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중립 화계 어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표현을 지칭할 때는 “[다]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생략-축약” 분석에 의하면 [대]형 표현들은 중립 화계 어미 ‘-다, 냐, -라, -자’ 다음에 나오는 ‘(-고) 하-’와 그 외의 요소가 생략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연세 사전에서는 ‘가-ㄴ대/내/래/재’를 ‘가-ㄴ다 고/냐고/라고/자고 해’의 통사적 구성이 줄어들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석한다. 반면에 Cho and Lim (2004)에서는 이들을 단어 단위로 보기 때문에 어간 ‘가-’ 다음의 모든 요소를 굴절접사인 어미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는 채희락 (2005b)에서 제시된 0-형 동사를 바탕으로 모든 [대]형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몇 가지 유형의 ‘(-고) 하-’ 관련 표현들을 살펴 보았다. 이들은 어떤 요소들이 생략되었는지 그 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 (10) a. 온다-고 하-ㄴ다 [온다고 한다], 온다-고 하-더라

#### b. 온다 하-ㄴ다 [온다 한다], 온다 하-더라

#### c. 온대-ㄴ다 [온덴다], 온대-더라

#### d. 온다-ㄴ다 [온단다], 온다-더라

전혀 생략된 요소가 없는 (a)의 표현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b)에서는 인용 조사 ‘-고’만 생략되어 있고 (c)와 (d)에서는 ‘-고’와 ‘하-’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 (c)의 [대]형과 (d)의 [다]형은 생략의 정도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형이 [다]형보다 생략된 요소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a)에서 (d)로 가면서 ‘(-고) 하-’ 관련 요소들의 생략 정도가 점점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 3.1 선행 연구

국어학계에서는 일찍부터 [대]형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남기심 (1973/1986, 122쪽)은 이들 즉, “변이융합 축약형”은 “오직 인용의 뜻으로만 해석이 된다”라고 했다.

- (11) a. 철수도 왔ندا.  
 b. 이것이 철수의 책이란다.  
 c. 그 사람도 갔ندا.

인용의 뜻만 가지고 있다는 말은 환원적 융합형으로만 쓰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필영 (1993, 132-33쪽)과 이지양 (1996, 204-05쪽)에서 지적했듯이, 일부 비환원적 융합형의 경우에도 [대]형이 가능하다.<sup>8</sup>

- (12) a. 철수가 내일 결혼한[다/대]-나.  
 b. 설악산이 아름답[다/대]-면서?  
 c. 철수가 학교에 간[다/대]-니까.

여기서의 [대]형 표현들은 비환원적 융합형으로 중간에 ‘(-고) 하-’ 관련 동사가 숨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의미적으로는 “내포절이 누군가의 말을 표현한 인용절이 되며, 따라서 내포절의 종결형도 평서, 의문, 명령, 청유형 모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환원적 융합형 중에서도 [대]형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환원적 융합형의 [대]형과는 속성이 다르므로 이 논문에서는 환원적 융합형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sup>9</sup>

남기심 (1973/1986, 116쪽)은 ‘간대요’와 같은 표현을 ‘간다고 해요’에서 도출해 내고 있다. 도출 과정에서는 먼저 인용격 조사 ‘-고’와 [ㅎ] 소리가 탈락하고 그 다음에 필수 규칙인 [ㄱ+ ㅎ → ㄱ]가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이 분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

<sup>8</sup> 이필영 (1993, 118쪽)은 ‘-다 해(요)’의 융합형인 ‘-대(요)’는 환원형과 비환원형의 과도기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up>9</sup> 비환원적 [대]형의 형태-통사적 특성과 의미-화용적 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채희락 (2005b, 591, 593쪽)에 제시되어 있다. 비환원적 융합형에서는 숨어 있는 동사를 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개별적인 특성은 해당 어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접어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한다.

고 있다 (이지양, 1996, 83-84쪽). 우선 ‘-고’ 탈락 규칙과 [ㅎ] 탈락 규칙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규칙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필수 규칙 [ ㅏ+ ㅓ → ㅓ ]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간다고 해요’에서 ‘-고’가 탈락하면 ‘간다 해요’가 되며 여기에 [ㅎ] 탈락 규칙과 이 필수 규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아파 해요’와 같은 표현도 ‘간다 해요’와 동일한 음운적 구성을 이루고 있지만 이들 규칙이 적용되어 ‘\*아파요’가 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간다고 해요’에서 ‘-고’와 [ㅎ]이 탈락되어 ‘간대요’가 도출된다면 (12)의 각 표현은 ‘결혼한다고 \*해나/해면서/해니까’와 같은 비문법적인 표현에서 도출된다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sup>10</sup>

[다]형과 [대]형의 교체 현상에 대해 이필영 (1993, 118쪽 이하)은 “하-어-X” 형과 “하-X” 형으로 나누고 전자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3) [하-어-X]형: -다 # 하-어서 > -다 # 해서 > -다-해서 > -대서

예를 들어, ‘-대서’의 경우, 원래 ‘하-’와 그 선행 요소는 서로 다른 단어에 속해 있는데, 먼저 [하-어] 부분이 [해]로 바뀌며 그 다음에 단어 경계가 약화되고 [-다-해] 부분이 [-대]가 된다는 것이다. ‘하-’ 다음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하-X]형에 대해서는 “‘하-’가 본래 ‘해-’로도 교체될 수 있는 형태적 특성을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 ... 이 때의 ‘-다-’형과 ‘-대-’형은 수의적인 이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분석의 문제점은, 첫째, 관련 음운 규칙들 즉, [하-어]가 [해]로 변하는 규칙과 [-다-해]가 [-대]로 변하는 규칙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X” 형에서는 [다]형과 [대]형을 수의적인 이형태라고 했는데 비환원적 융합형에서는 [대]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2)의 자료와 대비되어 다음의 자료는 비문법적이다.

(14) a. \*나도 바쁘낸다.

b. \*수술을 받재니 (겹이 낳다).

(14b)의 ‘받재-니’와 (12c)의 ‘간대-니까’는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비문법적이지만 후자는 문법적이다. 이는 [대]형의 속성이 [하-어-X]형과 [하-X]형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원적 융합형인지 비환원적 융합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에서는 [하-어-X]형과 [하-X]형을 완전히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데, 전자에 속하는 ‘대서’와 후자에 속하는 ‘대더라’가 모두 환원적 융합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질적인 과정을 통해 생성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간다.

Cho and Lim (2004)은 [대]형에 대한 (극단적인) 어휘주의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예를 들어, ‘(가)-ㄴ대/내/래/재’와 같은 단위를 통사적 구성이 아니라 단

<sup>10</sup> ‘-고’와 [ㅎ] 탈락 규칙은 음운 규칙이기 때문에 (12)와 같은 비환원적 융합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음운 규칙은 일반적으로 통사-의미적 제약과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로 보기 때문에 ‘-ㄴ대/-내/-래/-재’는 모두 굴절접사로 취급되고 있다. 이런 어휘적 분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다루고 있는 자료는 모두 환원적 융합형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관련 문장이 모두 이중주어 구문일 뿐만 아니라 (예: ‘영희가 철수가 잔대’) 주절과 종속절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인용의 뜻도 명백히 드러난다 (“a bi-clausal meaning”). 이들은 해당 단위가 분명히 통사적 구성을 이룬다는 즉, 환원적 융합형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다. 다음으로, 만약에 ‘-ㄴ대/-내/-래/-재’가 굴절접사라면 왜 \*‘책이대’와 \*‘삶어래’가 아니라 ‘책이래’와 ‘삶으래’로 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서술격 조사 ‘이-’의 중립 화계 평서형 어미가 ‘-다’가 아니라 ‘-라’이며 중립 화계의 명령형 어미가 ‘-어라’가 아니라 ‘-(으)라’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어휘주의적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또한 중립 화계 명령형 어미를 포함하는 비환원형 융합형은 없기 때문에 ‘삶으래’는 통사적 구성인 환원적 융합형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뒤혬대’에서처럼 [대]가 순환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순수한 단어 내부적인 속성이 아님을 보여 주는 현상이다.

### 3.2 새로운 제안

이제까지 우리는 기존 연구에서 (환원적 융합형의) [대]형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대체적으로 자의적인 음운 규칙들을 가정하고 있거나 관련 구문이 통사적 구성을 이루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대]형의 환원적 융합형 표현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형 속에는 (4)에서 제안한 중립 화계 어미를 취하는 무성 인용 동사 어간 ‘∅-’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용 동사 ‘하-’와 이로부터 도출된 인용 동사 ‘∅-’는 둘 다 반자음 [j]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채희락, 2005a; 채희락, 2005b, 각주 41, 50). 즉, ‘하-’와 ‘∅-’를 일종의 “[j]-중성 용언”으로 본다는 것이다.<sup>11</sup> 이를 반영하여 (4)의 어휘 규칙을 수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5) “무성 인용 동사” 어휘 규칙 (수정)

$$\left[ \begin{array}{l} d\text{-rule} \\ \text{INPUT} \quad \langle \text{ha-j, ARG-ST [...], CP/S[SPEECH-LEVEL neutral, ...]} \rangle \\ \text{OUTPUT} \langle \emptyset\text{-j, ARG-ST [...], S[SPEECH-LEVEL neutral, ...]} \rangle \end{array} \right]$$

이 새로운 분석 체계에서는 [대]형을 기본적으로 통사적 구성으로 볼 뿐만 아니라 모든 축약 관련 현상을 독립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sup>11</sup> 역사적 변천의 산물로 숨어 있는 [ㅎ] 소리를 가지고 있는 ‘암, 수’ 등을 “[ㅎ]-중성 체언”이라고 한다. 이 숨어 있는 소리의 영향으로 ‘수’와 ‘개’가 결합하면 ‘수개’가 된다. ‘가다’와 ‘오다’의 명령형이 ‘가-거라’와 ‘오-너라’로 불규칙적인데, 여기서의 [ㄱ]과 [ㄴ] 소리도 비슷한 기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본격적으로 [대]형 표현들을 분석하기 전에 일반 인용 동사 ‘하-’는 반자음 [j]와 더불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하-’라고 생각하는 동사가 실제로는 ‘하-j’라고 가정하고 [j]의 분포 유형을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면 동사 ‘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규칙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16) a. [j] 소리 뒤에 모음이 올 경우: [하-j-었-다] ⇒ 했다, 하였다, \*하었다

b. [j] 소리 뒤에 자음이 올 경우: [하-j-ㄴ다] ⇒ \*헨다, 한다

(a)에서처럼 [j] 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앞이나 뒤로 반드시 축약이 일어난다. 앞으로 축약이 일어나면 우선 [하]의 [ ㅏ]와 [j]가 합쳐 [ ㅑ]가 되며 이렇게 형성된 [해-었-다]는 또 다른 음운 규칙에 의해 ‘했다’로 된다. 전자의 음운 현상은 ‘아이’와 ‘애’ 그리고 ‘사이’와 ‘새’ 등의 교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 ㅑ] 소리 다음에 [ ㅓ]가 생략되는 후자의 음운 현상은 ‘끝내/\*끝내어, 없애/\*없애어’ 등에서 볼 수 있다.<sup>13</sup> 뒤로 축약이 일어나면 [j]와 [었]의 [ ㅓ]가 결합하여 [여]가 된다. 만약 이 분석이 옳다면 ‘하-’ 동사의 과거 시제 형태들은 전혀 불규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에서처럼 [j] 뒤에 자음이 올 경우에는 축약이 일어나지 않으며 [j]의 음가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하겠다’와 ‘하느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이다 ([하-j-겠-다] ⇒ \*해겠다, 하겠다; [하-j-(느)냐] ⇒ \*해(느)냐, 하(느)냐’).

‘하-j’ 동사의 [j] 소리 다음에 모음이 나올 때는 이의 음가가 살아 있지만 다음에 자음이 올 때는 그 음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17) a. [(빨리) 하-j-어라] ⇒ 해라, 하여라, \*하어라

b. [하-j-라(-고 했다)] ⇒ \*해라, 하라 (cf. \*하여라)

일반 해라체 명령형 어미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라/어라’이고 중립 화계의 명령형 어미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라’이다. 그래서 (a)에서는 [j]의 음가가 있는 형태만 문법적이지만 (b)에서는 [j]의 음가가 없는 형태만 문법적이다.<sup>14</sup> 이는 [j] 소리의 음운 환경에 따른 (16)의 분류가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대]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무성 인용 동사 ‘∅-j’는 어떤 유형의 행동을 보이는지 살펴 보자. (16)에서와 마찬가지로 [j] 소리 다음에 오는 요소가 모음인지 자음인지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sup>12</sup> [노랗/파랗-어 (지다)]가 ‘노래/파래 (지다)’가 되는 과정에서도 숨어 있는 (‘하-’와) [j]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sup>13</sup> ‘끝내/\*끝내어’와 ‘없애/\*없애어’에서는 [ ㅓ]가 반드시 생략이 되어야 하지만 ‘끝냈다/끝내었다’의 경우에는 [ ㅓ] 생략이 수의적이다.

<sup>14</sup> 만약 동사 ‘가-/오-’가 역사적으로 “ㄱ/ㄴ-중성 용언”이었다면 (cf. 각주 11) ‘가거라/오너라’와 ‘가라/오라(-고 했다)’의 변이도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ㅓ]과 [ ㄴ]의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해라체 명령형 어미 앞에서는 살아 있지만 자음으로 시작하는 중립 화계 명령형 어미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18) a. [j] 소리 뒤에 모음이 올 경우: [간다  $\emptyset$ -j-어]  $\Rightarrow$  간대, \*간다여, \*간다어

b. [j] 소리 뒤에 자음이 올 경우: [간다  $\emptyset$ -j-ㄴ다]  $\Rightarrow$  간댄다, 간단다

(a)에서처럼 [j] 소리 다음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앞 쪽으로만 축약이 일어나며 이는 의 무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과정이다. [간다  $\emptyset$ -j-어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만 축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간대라’만 가능하다. ‘똥대, 똥내, 똥래’와 ‘똥재’는 다음과 같이 분석이 된다.

(19) a. 똥-ㄴ대 ([똥-ㄴ다  $\emptyset$ -j-어]  $\Rightarrow$  똥-ㄴ대-어  $\Rightarrow$  똥대)

b. 똥-내 ([똥-냐  $\emptyset$ -j-어]  $\Rightarrow$  똥-내-어  $\Rightarrow$  똥내)

c. 똥-래 ([똥-라  $\emptyset$ -j-어]  $\Rightarrow$  똥-래-어  $\Rightarrow$  똥래)

d. 똥-재 ([똥-자  $\emptyset$ -j-어]  $\Rightarrow$  똥-재-어  $\Rightarrow$  똥재)

그러나 (18b)에서처럼 [j] 소리 다음에 자음이 올 경우에는 앞 쪽으로 축약이 될 수도 있고 [j]의 음가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필영, 1993, 125-125쪽). 또 다른 예로 [간다  $\emptyset$ -j-(ㄴ)냐]나 ‘간대(ㄴ)냐’나 ‘간다(ㄴ)냐’로 구현될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다만 [간다  $\emptyset$ -j-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축약이 일어난 형태인 ‘간대자’만 문법적이고 [j] 음가가 나타나지 않는 ‘\*간다자’는 비문법적이다. 후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마도 동일 소리의 반복 때문에 생기는 언어 처리상의 제약 때문인 것 같다.

반모음 [j]가 (18a)의 분포를 보이고 있을 때와 (18b)의 분포를 보이고 있을 때의 겹으로 보이는 차이점 중의 하나는 후자의 경우에는 다음처럼 어절 내에서 [ $\emptyset$ -j] 연결체가 두 번 이상 나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 a. \*똥-대-내 ([똥다  $\emptyset$ -j-냐  $\emptyset$ -j-어]  $\nrightarrow$  똥대내)

b. \*똥-내-래 ([똥-냐  $\emptyset$ -j-라  $\emptyset$ -j-어]  $\nrightarrow$  똥내래)

c. \*똥-래-재 ([똥-라  $\emptyset$ -j-자  $\emptyset$ -j-어]  $\nrightarrow$  똥래재)

이들 표현에서는 첫 번째 [j]가 모두 (18b)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18b)의 분포를 보더라도 [j]는 앞으로 축약이 될 수 있으므로 (20)의 형태들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 $\emptyset$ -j] 연결체의 중첩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제약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상위문의 동사가 ‘ $\emptyset$ -j’일 때는 그 종속절에 동일한 동사인 ‘ $\emptyset$ -j’가 나올 수 없다는 통사적인 제약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모든 [j]가 (18a)의 분포를 보이는 다음의 표현들은 문법적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sup>15</sup>

<sup>15</sup> Cho and Lim (2004)에서는 (21a)를 비문법적인 구성으로 보지만 문법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 (21) a. 똬-대-ㅅ-내 ([똬다 0-j-었-냐 0-j-어] ⇒ 똬땃내) (cf. (20a))  
 b. 똬-래-ㅅ-대 ([똬라 0-j-었-다 0-j-어] ⇒ 똬땃대) (cf. \*똬래대)  
 c. 똬-대-ㅅ-대 ([똬-다 0-j-었-다 0-j-어] ⇒ 똬땃대) (cf. \*똬대대)  
 d. 똬-래-ㅅ-내 ([똬라 0-j-었-냐 0-j-어] ⇒ 똬땃내) (cf. \*똬래내)

(20a)와 (21a)는 동일한 통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후자만 문법적이다. 이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종속절 속의 과거 시제 표지의 존재여부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유사성이 큰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음운론적 혹은 언어 처리상의 제약을 설정하는 것이다. (21)에서보다 (20)에서 유사한 [대]형의 소리들이 더 가까운 거리에서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런 제약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위의 통사적 접근법에 비해 이 접근법의 장점은 (21)의 자료와 같이 (18a)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20)과 같이 (18b)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0)의 자료에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제약이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은 이를 단순히 “[대]-[대] 중첩 제약”이라고 칭하려고 한다.<sup>16</sup>

이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위한 기본적인 문법 장치들이 모두 소개되었으며 관련 예문들도 분석이 되었다. 무성 인용 동사 ‘0-’가 도입되고 ‘하-’와 이 무성 동사에 [j] 소리가 붙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j]가 ‘하-’와 결합했을 때와 ‘0-’와 결합했을 때 각각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도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모음 [ɨ]와 [j]가 결합하여 [ɨj]로 되는 음운 규칙과 [ɨj] 다음의 [ɨ]가 생략되는 음운 규칙을 가정하였다. 이 규칙들은 [대]형만을 설명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분석은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음운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고’나 ‘하-’의 생략 규칙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우리 분석에서는 중립 화제 어미를 가진 동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0-’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 분석의 장점은 무엇보다 [j]를 도입하고 이의 음운론적 분포 환경에 따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대]형과 [다]형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j]가 앞 쪽의 모음에 붙어 구현되면 [대]형이 된다. 이필영 (1993, 118쪽)에서는 “-다-X” 형과 “-대-X” 형의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 “상위절 동사가 (‘하여도, 하여서, 하여야, 해(요)’ 등) ‘하여(해) X’일 때는 “-대-X” 형만이 쓰인다”라고 말한다. 즉, 예를 들어, ‘간다’와 ‘(-고) 하여도’가 결합하면 [-다-X]형인 ‘\*간다도’는 비문법적이고 [-대-X]형

<sup>16</sup> (20)의 표현들뿐만 아니라 첫 번째 [j]의 음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비문법적이다 (cf. (18b)): ‘\*똬다내, \*똬냐래, \*똬라래.’ 이렇게 [대]형이든 [다]형이든 가까운 거리에서 반복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대]-[대] 중첩 제약”은 “[다/대]-[다/대] 중첩 제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 ‘간대도’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분석에서는 이런 자의적 분류가 필요 없다. [가-나 다 0-j-어도]는 분포상 (18a)에 해당되어 앞 쪽으로만 축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간대도’만 가능하다. 비슷한 예로, ‘(내일 아버지가) 오신됐다’와 ‘\*오신됐다’의 차이에 대해 이지양 (1996, 195쪽)은 “인용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둘 때 인용 동사의 형태를 삭감하는 일은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론적 설명은 적용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문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될 수가 없다. 실제로 ‘오신다’는 “인용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정도가, 축약이 가능하다면, ‘\*오신됐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와 ‘-하-’ 및 [j] 소리까지 모두 나타나지 않아 “인용 동사의 형태 삭감” 정도도 동일하다. 그렇지만 ‘\*오신됐다’와는 달리 문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18a)의 명백한 기준에 의해 ‘오신됐다’만 가능해지게 된다.

우리 분석에서 [대]형은 무성 인용 동사 ‘0-j-’가 중립 화제 어미를 가진 동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통사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Cho and Lim (2004)의 어휘적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대]형은 [j]가 선행 모음과 결합하여 만들어 지며 ‘\*책이대’와 ‘\*삶어래’가 아니라 ‘책이래’와 ‘삶어래’로 되는 이유는 ‘0-’가 중립 화제 어미를 가진 동사와만 결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분석에서는 상위 동사 ‘0-j-’가 하위 동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복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중주어 구문의 복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제 Cho and Lim (2004)에서 제시된 자료 중에서 위에서 살펴 보지 않았거나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예들을 분석해 보자.

(22) 뒤-래-ㅁ-어 ([뒤-라 0-j-었-어] ⇒ 뒤-래-었어 ⇒ 뒤랬어)

(23) a. 뒤-래-ㅁ-대-ㅁ-대 ([뒤라 0-j-었-다 0-j-었-다 0-j-어] ⇒ 뒤랬됐다)

b. \*뒤-내-ㅁ-대-래 ([뒤냐 0-j-었-다 0-j-라 0-j-어] ✗ 뒤냈대래)

(22)의 ‘뒤랬어’와 (19c)의 ‘뒤래’의 차이는 전자는 상위문의 시제가 과거임에 비해 후자는 현재라는 것이다. (23)에서는 두 예문에서 모두 무성 인용 동사 ‘0-j-’가 세 번씩 나오지만 그 (비)문법성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a)에서는 모든 [j]가 모음 앞에 오기 때문에 (18a)의 규정에 의해 각각이 앞 쪽으로만 축약이 일어난다. [j]가 (18a)의 환경에서 앞으로 축약이 일어난 경우는 중첩이 되더라도 [대]-[대] 중첩 제약에 위배하지 않는다 (cf. (20) vs. (21)). 그렇지만 (b)에서는 [대래] 부분이 [대]-[대] 중첩 제약으로 인해 문제가 되므로 전체 표현이 비문법적이다.

다음 자료 (24)와 더불어 살펴 볼 자료 (25)와 (26)에서는 문법성에 영향을 끼치는 제삼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24) a. \*뒤-내-내 ([뒤-냐 0-j-냐 0-j-어] ✗ 뒤내내)



b. 뒤-내-ㅅ-내 ([뒤-냐 0-j-었-냐 0-j-어] ⇒ 뒤냈내)

(24a)는 [대]-[대] 중첩 제약에 의해 비문어 되었는데, (24b)는 앞 쪽의 [j] 다음에도 모음이 왔기 때문에 이 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ho and Lim (2004)에서는 (24b) 및 이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21a)를 비문법적인 구성으로 보지만 문법성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다음 두 쌍의 자료에서도 (24)의 (a)와 (b)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25) a. \*똥-대-래 ([똥다 0-j-라 0-j-어] ≠ 똥대래)

b. \*똥-대-ㅅ-래 ([똥다 0-j-었-(으)라 0-j-어] ≠ 똥땀(으)래)

(26) a. \*똥-래-래 ([똥라 0-j-라 0-j-어] ≠ 똥래래)

b. \*똥-래-ㅅ-래 ([똥라 0-j-었-(으)라 0-j-어] ≠ 똥땀(으)래)

그렇지만 (24b)와는 달리 (25b)와 (26b)는 모두 비문법적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이들의 [j] 소리는 모두 (18a)의 적용을 받아 앞으로 축약이 일어나므로 축약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들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먹었으라고’에서 볼 수 있듯이 (중립 화계의) 명령형 어미 ‘-(으)라’ 앞에는 과거 시제 표지가 올 수 없기 때문이다 (cf. ‘먹으라고’). 이처럼 (25b)와 (26b)의 비문법성에는 [j] 소리의 축약과는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원인이 있다.

Cho and Lim (2004)에서 다음의 (a)를 비문법적인 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비문법성은 이제까지 살펴 본 것과 종류가 다르다.

(27) a. \*뒤-내-대 (\*[뒤-냐 0-j-다 0-j-어] ≠ 뒤내대)

b. \*뒤-낸-대 ([뒤-냐 0-j-ㄴ다 0-j-어] ≠ 뒤낸대)

우리의 분석에서 (a)의 ‘뒤내대’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뒤-냐 0-j-다 0-j-어]가 정상적인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는 ‘0-j-’의 어말 어미가 ‘-다’가 아니라 ‘-ㄴ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성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ㄴ다’ 어미를 가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b)의 ‘\*뒤낸대’를 살펴 보자. 이것도 역시 비문법적인데, 그 이유는 [대]-[대] 중첩 제약 때문이다. ‘\*뒤낸대’는 (24b)의 ‘뒤냈내’와 겹 모양이 비슷하지만 후자는 [대]-[대]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뒤냈내’의 경우에는 겹으로 보기와는 달리 [j] 다음에 생략된 모음 ‘-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음 ‘ㅅ’이 연결되어 있지만 ‘\*뒤낸대’에서는 [j]에 자음 ‘ㄴ’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모음이 생략되어 겹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뒤냈내’의 [내]와 [내] 사이에는 ‘-었’에 의한 독립된 음절이 존재하지만 ‘\*뒤낸대’의 [내]와 [대] 사이에는 독립된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자음 [ㄴ]밖에 없기 때문에 후자가 [대]-[대] 제약에 더욱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대]형 자료를 살펴 보았다. 우리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의적이고 복잡한 문법 장치를 설정하지 않아도 관련 현상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의 설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용 동사에 붙어 있는 [j] 소리이다. 이 소리가 ‘(-고) 하-’ 관련 표현들의 생략 정도를 나타내는 한 척도가 된다. 우리는 이전의 자료 (10)에서 다음의 두 표현들 중 (c)가 (d)보다 생략된 요소가 적다고 가정했다.

(10) c. 온대-ㄴ다 [온덴다], 온대-더라

d. 온다-ㄴ다 [온단다], 온다-더라

이제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c)에는 인용 동사 ‘ $\emptyset$ ’의 종성인 [j] 소리가 선행 모음과 결합하여 남아 있지만 (d)에는 이 소리조차 남아 있지 않다. [j] 소리를 자의적으로 가정한 것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는 ‘이 아빠는 매우 바쁘단다/\*바쁘덴다’와 같은 표현의 (비)문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장은 비환원적 의미로만 해석이 된다. ‘바쁘단다’는 [바쁘-다  $\emptyset$ -j-ㄴ다]와 [바쁘-다-ㄴ다]의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며 이중 후자가 비환원적 의미를 가진 구조이다. 그렇지만 ‘\*바쁘덴다’의 경우에는 [대]형으로 만들어 주는 [j] 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소리는 인용 동사에만 붙어 있다. 그러므로 ‘\*바쁘덴다’는 [바쁘-다  $\emptyset$ -j-ㄴ다]로밖에 분석될 수 없다. 이 표현은 이렇게 비환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의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문법적일 수밖에 없다.

#### 4. 결론

우리는 이 논문에서 ‘(-고) 하-’ 관련 융합형들을 살펴 보았다. ‘(-고) 하-’의 관련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환원적 융합형과 비환원적 융합형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전자는 중간에 인용 동사 ‘하-j-’로부터 도출된 무성 인용 동사 ‘ $\emptyset$ -j-’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자에는 아무 동사도 숨어 있지 않은데, 전통적으로 하나의 굴절접사 어미로 간주되던 요소를 두 부분으로 분리해 내었으며 이들은 각각 굴절접사와 접어로 분석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대]형을 설명하기 위해 비과학적인 분류 체계를 도입하기도 하고 자의적인 음운 규칙을 가정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분석에서는 모든 환원적 [대]형이 [j] 소리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j] 소리는 분포 환경에 따라 행동이 다른데, 모음 앞에 올 때는 앞 쪽으로 반드시 축약이 일어나야 하므로 [대]형만 가능하지만 자음 앞에 올 때는 축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므로 [대]형과 [다]형이 모두 가능하다. 우리 분석의 최대 장점은 이처럼 어간 종성 소리 [j]를 도입하고 이의 분포 환경에 따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대]형과 [다]형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성 인용 동사 ‘ $\emptyset$ -j-’를 포함하고 있는 [다]형과 [대]형 표현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희가 철수는 매일 학교에 간대’와 같은 문장

에서는 주어와 두 개지만 관련 동사는 ‘간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문장에서 ‘간대’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통사와 의미 분석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간대’의 분석이 잘못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모든 관련 분석이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의 결과로 이런 [대]형 표현 자체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환원적 융합형 문장의 통사, 의미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되었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Ahn, Hee-Don and Hang-Jin Yoon. 1989. Functional categorie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79-88.
- Chae, Hee-Rahk. 1991/2000. The Morphological status of nominal “particles” in Korean. In Chungmin Lee and John Whitman (eds.), *Korean Syntax and Semantics: LSA Institute Workshop, Santa Cruz, '91*, pp. 206-221. Thaeaksa.
- Chae, Hee-Rahk. 1995. Clitic analyses of Korean “little words”.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10, 97-101.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Chae, Hee-Rahk and Yongkyoon No. 1998. A survey of morphological issues in Korean: Focusing on syntactically relevant phenomena. *Korean Linguistics* 9, 65-109.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Cho, Sae-Youn and Kyung-Sup Lim. 2004. A lexical analysis of ‘predicate + contraction morpheme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X, 372-385.
- Cho, Young-Mee Yu and Peter Sells. 1995. A lexical account of inflectional suffixe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4, 119-174.
- Sag, Ivan, Thomas Wasow, and Emily Bender. 2003.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2nd edition. CSLI Publications.
- Sohn, Ho-Min.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 Press.
- Spencer, Andrew. 1991. *Morphological Theory*. Basil Blackwell.
- Yoon, Jung-Me. 1990. Verb movement and the structure of IP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6, 343-371.
- Zwicky, Arnold M. 1985. Clitics and particles. *Language* 61.2, 283-305.
- Zwicky, Arnold M. and Geoffrey K. Pullum. 1983. Cliticization vs. inflection: English *n't*. *Language* 59.3, 502-513.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종복. 2004. 한국어 구구조문법. 한국문화사.
- 남기섭. 1973/1986.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탑출판사.
- 안명철. 1992. 현대 국어의 보문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 이익섭·채완. 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지양. 1996. 국어의 융합 현상. 태학사.
- 이필영. 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이필영. 1995. 통사적 구성에서의 축약. 국어학 26.
- 채희락. 1996. 한국어의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위어들”. 언어와 언어학 22. 한국외대 언어 연구소.
- 채희락. 2005a. 융합 현상과 ‘(-고) 하-’ 생략. 자연언어의 구조와 지식의 통합. 2005년 한국언어정보학회 여름 학술대회 발표 자료.
- 채희락. 2005b. 한국어의 소단위어: 동사류 소단위어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41.3.
- 최기용. 2003. 한국어의 핵 이동: 종결형을 중심으로. 생성문법연구 13.1.
- 한길. 1988. 예사낱춤 종결어미 형태 ‘-다네’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접수 일자: 2006년 7월 9일

게재 결정: 2006년 8월 3일